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and Panentheism: Focusing on the Concept of Donghak's God

Keukhoon Cho *

Kyongg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Panentheism,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concept of Donghak's God. Panentheism is a theory that recognizes the transcendence and immanence of Go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ritical synthesis of theism and pantheism.

CONTENT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concepts of concurrence and transition. Second, in relation to his process philosoph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anentheism were discussed centering on the polarity of God, the original nature and the consequent nature. Third, based on Whitehead's panentheis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Donghak's God were discussed.

RESULTS First, Whitehead's panentheism showed an organic and cosmological concept of God through conceptual analysis of primordial nature and consequential nature. Second, the interpretation of Donghak's concept of God as panentheism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popular and historic nature of Donghak's concept of God despite the difference in cultural background and linguistic limitations.

KEY WORDS Choi Cheu, Sicheonju. Concept of Donghak's God, Whitehead, Process Philosophy, Panentheism.

* Corresponding to Keukhoon Cho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yonggi University)

E-mail : cusanus@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 동학의 신관 해석을 중심으로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을 통해서 동학의 신관의 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범재신론은 유신론과 범신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연구 내용 첫째,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특성을 합생과 이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그의 과정철학과 관련하여 범재신론의 구조적 특성을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이라는 신의 양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셋째, 화이트헤드의 범재신론에 근거하여 동학의 신관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결론 첫째, 화이트헤드의 범재신론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의 개념적 분석을 통해 유기체적이며 우주론적인 신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한 것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언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학 신관의 민중성과 역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최제우, 시천주, 동학의 신관,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범재신론

I. 서론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주로 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경재 교수를 비롯하여 일군의 연구자들은 동학의 천주의 개념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이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범재신론을 제시하였다. 사실 범재신론은 동학의 천주개념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한다. 초월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유신론과 그러한 초월성이 만유에 내재한다고 하는 범신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범재신론(Panentheism)의 어원은 “신(theos)은 모든 것(pan) 안에 존재(en)”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들에 의해 고갈되는 일이 없는 것,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속성을 지닌다(Lee, 2019: 199)¹⁾.

범재신론은 지금까지 동학 신관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알려진 것은 이러한 개념화의 유용성과 함께 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이 서학의 신학적 학문 배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화의 유용성이 곧 그 개념의 실체까지 온전하게 표현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기에는 동학 천주 개념 형성의 사상적 배경과 동학 경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차용했던 이론가는 하트슨, 화이트헤드, 캅 등이다.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우선 김경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 체험에 주목하면서 동학의 신관을 기독교의 성경적 신관과 비교하여 범재신론으로 규정하였다. 동학의 신관은 “초월신론이나, 내재신론이 아니고 ‘내재적 초월신론’의 형태를 지니며, 궁극적 실재의 초월성을 강조한 유신론(Theism)과 그 내재성만을 강조하는 범신론(Pantheism)의 양극화를 극복하여 범재신론(일명 만유재신론, Pan-en-theism)”이며, 이는 오랫동안 인류의 종교들이 빠져들었고, 철학적 세계관이 빠져들었던 다원론(Pluralism), 이원론(Dualism), 일원론(Monism)을 극복한 신관이었다(Kim, 1999: 35). 그러면서 그는 화이트헤드의 저서 『과정과 실재』의 일부분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범재신론 또는 만유재신론의 특징은 우주의 궁극자이신 하느님의 신령성, 초인격성, 감응성, 창조성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 실재가 만유를 떠나 별천지에 존재하는 초월적 타자가 아니라 만유 속에 내재하고 만유를 창발시키는 창조적 힘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주 하느님으로서의 신격을

1) 서구 종교담론에서 범재신론(Panentheism)이란 단어는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인 셸링과 헤겔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카를 크라우제(1781~1832)가 프리델의 종교철학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조어(造語)로 이는 고전적 유신론과 기존의 범신론(pantheism)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Oh, Z. H., 2020: 86).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Whitehead, Oh trans, 1991: 45).²⁾

김상일은 「동학과 과정철학의 신관 비교」라는 논문에서 수운 최제우와 화이트헤드의 반형이상학적 사유방식을 근거로 신관의 유사성을 주장하였다. 수운이 유불도를 비판하고 종래의 형이상학적 체계 대신 시천주 사상을 제시하려고 했고 화이트헤드 또한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유기체적 우주론을 정립하려고 했듯이, 양자는 종래의 형이상학의 비판을 통한 새로운 우주론을 정립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수운이 천주에 지기를 결부시키려고 했고 화이트헤드 또한 기존의 인격신 대신 신을 창조성의 피조물로 생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점이 있다(Kim, 2002: 33-35).

동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이돈화가 제시한 범신과 일신의 반대일치의 신관을 비롯하여 동학의 신관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천주와 지기, 일신과 범신, 초월과 내재 등 두 측면이 병합되어 있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동희 또한 실체와 속성의 측면에서 동학의 신의 개념을 “자연계를 다스리는 존재”,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존재”, “인간의 화복을 다스리는 존재”, “속일 수 없는 존재”,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 “성실하고 무사한 존재”, “사람을 구제하는 존재” 등으로 규정하였다(Choi, 1965: 92-93). 이찬구는 동학의 신개념에 대해 초월적 경향과 내재적 경향 그리고 양자의 통일적 측면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즉, 초월적 경향으로는 “지고한 존재”, “인격적 존재”, “의지적 존재”, “전능의 존재”, “전지의 존재”, “주재신의 모습”을 들 수 있으며, 내재적 경향으로는 범신론적 특성을, 그리고 양자의 통일의 측면은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Lee, 2002)³⁾.

본 연구는 이러한 동학 신개념에 대한 연구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특히 범재신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동학의 신개념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유의미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신과 세계의 관계, 내재와 초월의 동시 존재, 신의 역할 등을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의 성격을 그의 주저 『과정과 실재』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학 신개념의 특성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화이트헤드는 “유대교적인 초월적 신과 아시아의 내재적 신”, 다시 말하면 “유일신론적인 신과 범신론적인 신을 모두 비판하면서 양자를 종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범재신론은 “신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긍정”한다는 점에서 신과 우주를 동일시하는 내재적인 범신론과도 다르며, 초월적 유일신론과도 다르다(Lee, 2019: 199).

3) 동학의 신관에 대한 연구사와 신 개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이찬구(2002)의 연구와 천주와 지기, 내재와 초월의 변증법적 관계로 동학의 신관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관해서는 조극훈의 연구(2011)를 참조.

II.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에 대한 유기체적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문화 그리고 종교 분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철학자였다. 초기에는 러셀(B. Russell)과 함께 『수학원리』를 집필하면서 주로 수학과 과학 연구에 집중하였고, 비교적 늦은 시기인 60대 중반이후부터 철학과 형이상학 연구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양철학의 역사는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남길 정도로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넘쳤던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철학을 서구철학사 전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 과정철학이라는 또다른 주석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양철학사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또다른 주석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형이상학의 근간을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찾고 이를 과정철학으로 명명하였다. 과정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주석인지 아니면 화이트헤드의 창조적인 철학인지 문제는 철학사에 접근하는 관점과 접근하는 연구자들의 철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그가 남긴 과정철학과 이에 근거하여 펼친 종교관에 관심을 갖고 그의 종교관이 한국의 근대 민족종교, 특히 동학의 신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화이트헤드는 존재를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과정철학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신이라는 존재도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물의 과정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의 과정철학은 헤라이클레이토스(Heraclitus of Ephesus)의 만물유전(萬物流轉)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는 과정과 실재에서 자신의 철학의 기원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물은 흐른다”(all things flow)(Whitehead, Oh trans, 1991: 382)라는 철학의 오랜 명제를 제시하면서 이 명제를 철학의 출발점이자 형이상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모든 사물은 흐른다”는 명제에서 출발한 그는 이를 “사물의 영속”(permanence of things) 개념과 대비하여 “사물의 유동”(flux of things)의 개념으로 정식화하여 자신의 유기체적 철학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사물의 영속의 개념과 사물의 유동의 개념을 구분했던 것은 이전의 “실체” 형이상학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사물의 영속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실체 형이상학은 데카르트(R. Descartes) 철학의 원리처럼 자기 이외의 다른 원인을 갖지 않은 자기 원인(causa sui)적 존재를 세계의 궁극적 원리로 설정한다. 이러한 실체론적 사유는 자연 속의 사물이란 자기 창조성을 갖지 않고 공간 속에서 변하지 않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물질 조각들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데서 비롯된 “넒리 퍼진 사고의 습관”이다. 이러한 사고의 습관은 우주 속의 사물이란 주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단지 수동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운동하는 것으로, “자기향유”(self-enjoyment)라는 경험의 요소를 갖지 않는 “공허한 현실태”(vacuous actuality)라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Whitehead, Oh trans, 1991: 44, 97, 347).

실체 형이상학은 주체적 경험을 갖지 않은 공허한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화이트헤드는 매순간 현실에 관여하고 경험하고 창조하는 과정으로서의 존재를 새로운 형이상학의 원리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과정철학은 실체 형이상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유동의 개념과 결합하여 영속과 유동을 지양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형이상학을 구축하는 데 그 새로움이 있다. 그의 성서해석은 이러한 작업의 본보기이다.

그는 누가복음서 제24장 제29절을 다음과 같이 명제화하여 초월과 내재 및 상호작용과 창조성이라는 자신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적 종교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Whitehead, Oh trans, 1991: 383)⁴⁾

그는 위의 명제가 유동과 영속의 완전한 결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첫째 줄은 함께 하다, 나, 그리고 호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자인 영속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 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유동의 한복판에다 이 영속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첫째 줄에서 출발한 철학자들은 <실체>의 형이상학을 제공해왔으며, 둘째 줄에서 출발한 철학자들은 <유동>의 형이상학을 전개해 왔다고 본다(Whitehead, Oh trans, 1991: 384). 사실 이러한 분류는 철학사 개념의 일반적인 분류로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의 독창성은 오히려 양자, 즉 <실체>의 형이상학과 <유동>의 형이상학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과정철학, 유기체적 철학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양자의 결합으로 과정철학은 관계성, 생태성, 창조성 등 다양한 수식어로 그 특징이 표현되기도 한다. 실체의 형이상학과 유동의 형이상학의 결합, 내재와 초월의 동시 존재라는 특징을 지닌 과정철학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지평에서 창조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사건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계론적 사유”이며, “주체(유기체)와 객체(환경)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밀접한 내재적인 관계방식을 맺고 존재한다고 보는 생태학적 사고이다.”(Kim, H. H., 2012: 210). 이는 사물이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기계론적, 결정론적 사고와도 대립되며, 물질과 정신, 법칙과 자유, 경험과 합리성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유와도 구분된다.

특히 과정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합생(concrescence)과 이행(transition)의 개념이다. 이는 사물의 영속과 사물의 유동이라는 과정철학, 유기체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그의 독특한 개념이다. 합생은 “개별적 존재자의 실재적인 내적 구조”를 말하고, 이행은 “개별적 존재자에서 개별적 존재자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인 존 로크(J. Locke)에게서 발견되는 것인데 다만 로크는 이를 자각하지 못했다고 하

4) 화이트헤드의 이 명제는 누가복음서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누가복음서 제24장 제29절).

는 것이며, 흄(D. Hume)에게서는 암시적으로 제시되었던 개념이며, 칸트(I. Kant)에게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던 개념이다. 하지만 헤겔(G.W.F. Hegel)과 그의 진화론적 일원론에 와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합생이란 “개별적 존재자의 구조에 내재하는 유동성”을 의미하고, 이행이란 “개별적인 존재자의 완결성에 이르는 과정의 소멸이 그 개별적 존재자를, 과정의 반복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 다른 개별적 존재자들을 구성하는 시원적 요소로 만드는 유동성”을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용어를 빌어 전자는 “목적인”(final cause), 후자는 “작용인”(efficient cause)으로 부른다(Whitehead, Oh trans, 1991: 385). 사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존재론적 구성요소를 동시에 갖고서 항상 새로움을 낳는 사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첫째, 다른 사물과의 내적 관계를 통해 체득하여 자신의 과거에서 이미 실현한 자료들(data)-작용인(efficient cause), 둘째, 미래의 새로운 실현 속으로 돌입할 아직 구현되지 않은 가능태인 영속적 대상(eternal object)-가능태(potentiality), 셋째, 그 자료와 가능태를 창조적으로 결합시킬 주체적 지향(subjective aim)-목적인(final cause).(Whitehead, Oh and Moon trans, 2003: 208).

또한 합생을 “구체적인 것 속으로의 참여”라고 규정한다. “합생이란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우주가 그 다자의 각 항을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Whitehead, Oh trans, 1991: 387)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특히 과정철학은 자기창조성을 본질로 하는 유기체적 관계론의 관점을 중시한다. 이는 세계를 살아있는 우주로 이해하면서 그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현실적 존재를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란 처음부터 자기완결적 구조를 지닌 사물의 외적 충돌의 관계방식이 아니라 자기창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만물의 존재방식 자체를 말한다(Kim, H. H., 2012: 210).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합생과 전이를 하는데 신은 전이를 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존재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생성되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생성됐다가 소멸하지만 소멸하는 그 존재는 다음에 생성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존재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을 거듭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생성과 소멸을 하는 개체가 합생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이를 함으로써 과정 속에 있게 된다.

III. 화이트헤드의 범재신론의 특징

이러한 과정철학적 사유에서 신의 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데 신은 세계와 분리되거나 역사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건론에 기초한 과정철학의 신은 역사와 세계와 함께 하는 신이다. 그래서 범재신론은 “신과 세계의 상호초월과 상호내재라는 관계론을 지지한다. 신은 사건으로 존재하는 만물 속에서 자기창조성을 일으키는 주체의 지향을 최초로 촉발하

는 존재로 개입하며, 만물은 스스로 잉태한 창조적 결실로 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Kim, H. H., 2012: 211).

화이트헤드의 신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양극성을 가진다는 점과 신에게는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원초적 본성에서 시간의 개념은 신과 세계의 관계를 이어주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그의 범재신론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신은 “원초적 본성”(primordial nature)과 “결과적 본성”(consequent nature)이라는 양극성(dipolar)을 가진 현실체(actual entity)이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신이 양극적, 두 개의 축을 가진 존재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개념은 그의 과정철학적 사유에서 논리적으로 귀결된 결론이며 종래의 초월적 존재 하나만을 인정했던 단극적 신관과는 다르다. 이와는 달리 양극적 본성을 지닌 신은 세계와 유기체적인 관계로 사유되며 세계 속에 존재하고 세계 속에 관계하는 현실적 존재이다.

모든 현실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의 본성은 양극적이다. 신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갖고 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의식적이다. 그것은 신의 본성의 통일성에 있어서의, 그리고 신의 지혜의 변형을 통한, 현실 세계의 실현이다. 원초적 본성은 개념적이며, 결과적 본성은 신의 물리적 느낌들이 신의 원초적 개념들 위에 짜여들어간 것을 말한다(Whitehead, Oh trans, 1991: 593).

원초적 본성이란 추상적이고 개념적 본성을 말한다. 완전한 해당하는 본성을 말하는데, 그는 신을 “절대적으로 풍부한 가능태의 무제한적인 개념적 실현(conceptual realization)”이라고 규정했다(Whitehead, Oh trans, 1991: 591). 개념적이란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공통된 것을 일반화하여 추상화한 것을 의미하며, 무제한적이란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체란 신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같이 형이상학적 특징을 가진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신은 이 세상의 존재들과 동등한 수준의 존재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존재들의 특징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이며,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제한적 존재이며, 세상의 존재와 마찬가지로의 특징을 지닌 존재인 현실체(actual entity)이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원초적 본성은 개념적 실현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함께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은 모든 창조에 앞서(before)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와 더불어(with) 있다.” 창조에 앞서 존재하는 신은 세계와 관계하지 못하지만 창조와 함께 존재하는 신은 세계와 유기적으로 관계한다. 그는 신을 “느낌을 위한 유혹”(lure for feeling), “욕구의 영원한 충동”으로 규정했다(Whitehead, Oh trans, 1991: 591). 경험적이며 현실과 직접 관계하고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신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결과적 본성이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본성을 말한다. 원초적 본성이 불변적이라면 결과적 본성은 수시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확장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신은 일자이면서 다자라고 한다.

신의 결과적 본성이란 현실태의 다양한 자유를 신 자신의 현실화의 조화로 수용함으로써 신 자신의 경험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Whitehead, Oh trans, 1991: 600).

다음과 같은 화이트헤드의 문장은 범재신론적 성격을 지닌 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신과 세계의 유기적 연결관계를 보여주면서 그의 범신론적인 신의 속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다.

- (1) 신은 항구적이고 세계는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는 항구적이고 신은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 (2) 신은 일자(一者)이고 세계는 다자(多者)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는 일자이고 신은 다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 (3) 세계와 비교할 때 신이 탁월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과 비교할 때 세계가 탁월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 (4) 세계가 신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세계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 (5) 신이 세계를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신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 (6) 신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신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Whitehead, Oh trans, 1991: 597-598).

위의 문장은 신과 세계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인 신은 하나이지만 다자로 흩어지게 되고, 세계의 수많은 존재들인 다자는 다시 신이라는 일자에 모여지게 된다. 창조성의 문제는 신의 본성을 언급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다. 신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종래의 유신론의 근본 명제이다. 하지만 세계가 신을 창조한다는 말은 이전의 신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과적 본성에서 볼 때 세계는 창조된 신으로서 다시 세계에 의해서 더 풍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더 많은 것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양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신은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에게는 현재만이 있다”는 것이다. 신은 과거와 미래가 없고 현재만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신이

다른 존재와 다른 부분이다.

모든 존재는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전이하는데 신은 전이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신이 다른 존재와 다른 점으로 현재의 고통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다시 말하면 신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이 있다. 그 현재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신은 사랑이다.

사랑은 통치하지 않으며, 또 부동의 것도 아니다.. 또 사랑은 도덕에 대해 별로 주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미래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 현재에서 그 보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Whitehead, Oh trans, 1991: 590).

그러므로 신은 다른 존재의 모든 고통을 현재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것을 안고 함께 하는 존재이다. 신은 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현재에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은 “위대한 동반자”(companion)이며, “이해하는 일련탄생(一蓮托生)의 수난자”(fellow-sufferer who understands)(Whitehead, Oh trans, 1991: 603)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신은 세계 속에 고통받는 개체들에 무심한 존재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깊어지는 동반자이며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에서 실재성으로 변형되고, 천국에서의 실재성은 세계로 되돌아 이행한다. 이러한 상호관계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은 천국의 사랑이 되고, 다시 이 세상에 흘러넘친다”(Whitehead, Oh trans, 1991: 603). 신의 결과적 본성으로서 신과 세계가 상호 관계한다는 점에서 범재신론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는 신의 내재성과 초월성의 성격을 신의 양극성에 의해 설명한다. 기원과 원리의 역할을 하는 원초적 본성과 창조적 성격을 갖는 물리적 세계의 결과적 본성이 신의 두 가지 본성이다. 원초적 본성에서는 신은 세계에 내재하지만, 결과적 본성에서는 신은 세계를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철학의 논리적 귀결인 유기적인 범재신관은 신을 둘러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모범답안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신과 세상과의 소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신과 세계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신은 양극적 본성, 즉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갖는데 원초적 본성을 갖는 신이 어떻게 세계와 관계하는가의 문제가 설명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원초적 본성은 무제한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초월해 있지만, 세계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므로 신과 세계 양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원초적 본성의 특징으로 거론된 개념이 과연 시간을 초월한 것인지, 시간을 넘어서 논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연 신의 원초적 본성에서 지시하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신의 원초성(primordality)을 “비시간적”(atemporal)인 것과 “무시간적”(non-temporal)인 것으로 나누어 이해

하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입장을 옹호했던 포드(Lewis S. Ford)에 따르면, 신의 원초성은 비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즉, 신의 원초적 본성은 시간의 경과를 따르는 세계로부터 벗어나 변화하지 않은 비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추이로부터 독립하여 진행되는 주체적 활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응답할 개념적 보충(conceptual supplementation)인 무시간적인 것이다. “무시간성”(non-temporality)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끝없이 존속하는 “영속성”(everlasting)과 다르며, 시간의 경과로부터 객관적으로 독립하여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시간성”(atemporality)과 다르며, 또한 하나의 순간에 전체적이고 완벽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끝없는 생명의 소유라고 보는 보에티우스(Boethius)의 “영원성”(eternity)과도 구분된다(Kim, 2007: 32에서 재인용).

신의 원초적 본성의 성격으로 제시했던 무시간성은 결국 신은 세계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주장을 입증할 개념이다. 신과 세계, 개념과 현실, 정신과 육체, 유한성과 무한성은 사실 형식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행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를 구성하는 변증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과정, 유기체적 관계, 무시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증법적 성격을 지닌다.

근대 독일관념론을 변증법적 체계로 완성했던 헤겔(G.W.F. Hegel)은 철학의 원리인 절대자를 부동의 실체가 아니라 “주체”, “생성”, “과정”, “역사”로 파악했다. 특히 그는 시간 개념에 주목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자연적 시간 대신에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적 시간을 제시했다. 개념적 시간은 시간으로서의 시간, 영원한 것, 절대적 현재이다. 이는 지금이면서 지금을 지양한 시간 개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만 동시에 개념적으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변증법적 성격을 지닌 논리적 시간을 말한다. 이는 화이트헤드의 원초적 본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적 무시간성은 지속과 구별된다. 그것은 자연적 시간이 아닌 영원이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의의 시간이나 지금이 아니라, 시간으로서의 시간이고, 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모든 개념 일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 현재이기도 하다(Hegel, 1971: 50-51).

개념적 시간은 유한성과 무한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한 시간, 다시 말하면 초월적 성격과 내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논리적 시간이다. 헤겔은 이를 정신의 변증법으로 구체화하여 인간과 세계를 포함하는 절대자의 변증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제시하였다.

정신적인 것은 (1) 실재 또는 즉자존재(das Wesen oder Ansichseiende)이며, (2) 타자와 관계하는 것, 즉 타자존재 또는 대자존재(das Anderssein oder Fuersichsein)이며, (3) 이와 같이 규정

되어 있으면서, 즉 자기의 밖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das in dieser Bestimmtheit oder seinem Aussersichsein in sich selbst Bleibende) 다시 말하면, 즉자대자존재(das Anundfuersichsein)이다.”(Hegel, 1952: 24).

위의 인용문은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정식화한 변증법의 대표적인 형식인 ‘즉자-대자-즉자대자’의 변증법이다. 자기와 타자 그리고 자기와 타자의 상호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자타의 관계는 헤겔의 변증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자연 시간에서 볼 때 존재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지만, 개념 시간에서 볼 때 존재는 생성과 소멸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화이트헤드의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의 속성도 헤겔의 이러한 개념적 시간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포드는 비시간성 대신 무시간성을 화이트헤드의 원초적 본성의 시간으로 해석하였다. 무시간성은 초월과 내재라는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가 타자가 되고 그 타자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지양하여 더 발전된 자기를 형성하는 정신의 변증법에서 관통하는 개념적 시간이다.

IV. 화이트헤드의 범재신론 관점에서 본 동학 신관의 특성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동학의 신개념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하려는 연구자들은 상당 부분 신학을 학문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그의 범재신론을 연구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동학 신개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동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측면은 있다. 더욱이 동학이 서학과 기존 종교나 이념에 대한 비판의 결과 탄생했다는 점에서 서학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서구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동학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교리사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범재신론의 이론적 토대가 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 그렇게 내재성과 초월성과 같은 몇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범재신론은 서구적 유일신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 동학의 신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관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한국 민족종교의 고유한 신관에 근거하고 있다. 동학을 비롯한 한국의 민족종교의 천신관(天神觀)에는 기독교의 초월적 유일신론과는 다른 지고신(至高神)으로서의 한울님이나 천부경(天符經)의 한 사상과 같은 귀일사상(歸一思想)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신의 배려나 은총보다는 인간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둔 인간중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Yoon, 2022). 동학이 시천주(侍天主) 수문수련이나 수심정기(修心正氣) 수련을 통해 인간의 변화를 강조하고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세상을 동귀일체(同

歸一體)의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이상을 제시한 것도 인간중심적 종교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특정 종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동학을 비롯한 민족종교의 문화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이질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을 표현하거나 신의 성격을 표현하는 개념과 언어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유신론, 범신론, 이신론, 범재신론 등의 표현은 상제(上帝), 한울님, 천주(天主), 지기(至氣) 및 천관 등의 표현과 다르다. 특히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에 14회나 사용한 천주라는 말은 동학의 종지인 21자 주문의 핵심어이며 수운이 서학의 천주관과 성리학의 천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하늘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사용했다는 점(lee, 2002: 137) 염두에 둔다면 그 언어적 차이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동학의 신관이라고 표현했지만 동학에서 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하는 것조차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김경재와 김상일 등이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할 때 사용한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표현도 동학의 신개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아야 한다. 내재성은 내유신령(內有神靈)이나 천주를, 초월성은 외유기화(外有氣化)나 지기를 대입하여 이해하지만, 동학의 언어들은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언어로 재단하기에는 그 자체 유기적이며 총체적인 관계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은 언어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언어 이전에 존재를 보게 하는 것이 언어의 목적이지만 언어 자체는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데 본래 소임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가 존재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또한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숙명에 대한 소설가의 깨달음처럼 동학과 서학의 언어적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신과 세계의 관계, 신의 창조성과 시간성 그리고 민중성을 볼 필요가 있다.

진실이 머문 강물 저편을 향해 한치도 헤어나갈 수 없는 허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을없이 그 말을 되풀이할 수가 없다(Park, 2014: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접근하는 데는 무엇보다 천, 한울님을 고정불변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과정에서 생성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동학의 천주와 지기 개념의 창조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에서 의도했던 것도 신과 세계와의 유기적 관계를 철학적으로 정립하면서 생멸하는 존재와 함께 하는 신의 이념이었다. 그가 범재신론에서 신의 성격으로 표현했던 6가지 문장에서 유동성과 항구성, 내재성과 초월성, 그리고 창조성은 동학의 신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이들 개념은 시간의 흐름과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신관이나 성리학적 신관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생멸하는 세계에서 유동하면서도 그 신성을 잃지 않고, 개체 속에 내재하면서도 정신으로는 그 개체성을 초월하여 총체성을 유지하며, 인간과 세계에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가치있는 것을 창조하는 신은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하는 신이며 오탁악세의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신이다. 이러한 신은 동학의 시천주의 한울님과 다른 것이 아니다.

특히 신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신의 양극성의 개념은 시운(時運)과 개벽(開闢)과 같은 동학의 시간관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동학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많이 나온다. 권학가의 시운, 용담가의 개벽 후 오만년, 교훈가의 전만고 후만고, 권학가의 일성일쇠, 논학문의 무왕불복 등은 모두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 만일 시간이 단순히 자연시간처럼 생멸하고 전이만 되는 시간이라면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려는 생명의 기운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서처럼 전이를 통해서 다시 합생하여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과정을 밟듯이 동학의 시간은 낡은 것을 새롭게 하고, 각자위심의 마음을 동귀일체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면서,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생명의 기운이 발현되는 시간이다. 생명의 기운은 작은 씨앗에서 발아된다.

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애잔하다. 바람에 드러눕는 풀잎이며 눈 실린 나뭇가지에 홀로 앉아 우짖는 작은 새, 억조창생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애잔함이 충만된 이 엄청난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일사불란한 법칙 앞에서 나는 비로소 털고 일어섰다. 찰나 같은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이다(Park, 2014: 13).

추상적 종교언어보다는 소설가의 원시적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에서 길러진 삶의 언어를 인용하는 것이 범재신론적인 동학의 신관의 특성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오랜 문화적 전통의 차이나 언어의 이질성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과정철학을 통해 생명의 기운과 삶의 시간을 통해 민중성과 창조성 그리고 역사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V. 맺는 말

화이트헤드는 과정철학을 모티브로 기존의 신관과는 다른 범재신론을 제시하였다. 과정철학은 변화와 유동성이 없는 실체 형이상학과는 달리 합생과 이행의 논리를 통해 생멸하는 현실적 존재의 유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체 형이상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의

형이상학과 결부시켜 신과 세계의 관계성을 정당화했다는 점이 과정철학의 독창성이다. 신의 본성을 초월적인 성격 한 가지로만 보지 않고 양극성으로 규정한 것은 그의 과정철학과 범재신론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이라는 신의 양극성은 신과 세계의 관계와 세상의 고통에 대한 감내,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를 암시하는 범재신론의 중요한 개념을 이루고 있다.

특히 시간 개념은 물리적 시간이나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로서 설명되는 개념적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과 범재신론의 특성으로 제시한 6가지 문장은 동학의 신개념을 해석할 때 매우 유용하다.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이질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러한 차이와 이질감을 넘어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범재신론으로서 동학의 신관은 세상의 생멸가운데서 민중의 고통과 함께 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개혁의 기운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화이트헤드가 범재신론을 제시하게 된 것은 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는 습관화된 사유방식이라고 하는 실체 형이상학과 종래의 종교관에 대해 도전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하면서 신은 세계와 관계하고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동료요 동반자라고 규정하였다. 동학에서 신이라고 지칭되는 천주가 동료이고 동반자라면 최제우나 최시형 그리고 손병희와 같은 동학의 지도자들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이들 지도자들은 누구 못지않게 민중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하였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렇다면 이들도 당연히 동반자요 친구로서 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심정기 수련을 통하여 ‘오심즉여심’을 자각한 사람도 누구나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학의 지도자들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오심즉여심을 자각한 사람도 더욱이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범재신론에서는 내재적 성격과 초월적 성격을 동시에 가져야 신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심즉여심은 한울과 인간이 한 마음으로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동학의 신적 체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범재신론의 관점에서 신과 세계가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신의 두 가지 본성에 있고 동학에서는 마음에 있다.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행법인 수심정기를 통해서 종교심을 가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론과 논리를 중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과 수행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가 범재신론적 신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경지를 언어화하고 설명하는데 범재신론의 논리와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왜 범재신론과 같은 신론이 제시됐으며 현실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사고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만들어 신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재신론은 동학 신관의 민중성과 역사성을 언어화하는데 기여했다.

References

- Cho, K. H. (2011). Dialect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 of Donghak's God. *The Donghak Studies*, 31, 41-60.
- Cho, K. H. (2012). What Does the 'Transforming of the Body to the Nature' Mean Philosophically for Uiam(義菴) Son Byunghi(孫秉熙)?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24, 275-308.
- Cho, K. H. (2017). Gaebyeog Thought and Innaecheon Spirit in Donghak-Chondogyo.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42, 57-88.
- Choi, D. H. (1965). Donghak Concepts of God. *Philosophical Studies*, 4, 3-8.
- Hartshorn, C. (1948). *The Divine Relativity: A Social Conception of G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egel, G. W. F. (1952). *Phaenomenologie des Geistes*. (Hg.) von Hoffmeister, Felix. Meiner Verlag.
- Hegel, G. W. F. (1971). *Wissenschaft der Logik I*, Shurkamp Verlag.
- Jun, S. H. (2015).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Fraternity' from the Viewpoint of Donghak · Chondogyo for the modern Society.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34, 81-110.
- Kim, H. H. (2007). God Concepts of Process Thought: A Comparison of Whitehead's and Hartshorne's God. *The Journal of Whitehead Studies*, 15, 9-40.
- Kim, H. H. (2012). Panentheism and the Theology of Event: A Process Interpretation of Ahn Byung-mu's Theology of Event.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3, 201-226.
- Kim, K. J. (1999). Donghak's experience of heaven and earth and the God of Donghak. *The Journal of Donghak Studies*, 4, 23-43.
- Kim, S. I.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d of Donghak and Process Philosophy. *The Journal of Woowon Thought*, 11, 31-79.
- Kim, Y. C. (2009). Donghak Concepts of God and Life: With Special Reference to Yi Don-hwa's Interpretation. *The Journal of Donghak Studies*, 18, 51-79.
- Kim, Y. C. (2015). Religious experience as a self-reflection - focus on Suun and Augustine.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34, 7-42.
- Kim, Y. H. (2003). A comparison between the theism of christianity and Cheondokyo.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6, 85-125.
- Kwon, J. K. (2004). Religious experience as a self-reflection - focus on Suun and Augustine.

- Theological Thought*, 127, 35-68.
- Lee, C. G. (2002). A Study on the Concept of Donghak's God(Hanallim).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0(4), 131-159.
- Lee, J. S. (2019). Spiritual Implications of Whitehead's Panentheism.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5, 189-230.
- Lee, K. B. (1988). A Study on the Ch'ondogyo (天道教) Concept of God.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 1-66.
- Lim, T. H. (2015). Retrospection of My 20 Years Studies on Donghak(1995-2014): Views of God, Mystical Experience and Comparative Studie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5, 61-92.
- Oh, Z. H. (2020). A Study on F. L. Wright's Search for Romantic Legacy in the 'Organic' and its Meaning: Focused on Unification of Religious Philosophical Ideas of Panentheism in East and West & its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ank Lloyd Wright's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2), 81-90.
- Park, K. R. (2014). *Land*. Maroniebooks Press.
-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오영환 옮김 (1991). 과정과 실재. 서울: 민음사.
- Whitehead, A. N. *Modes of Thought*. 오영환, 문창욱 옮김 (2003). 사고의 양태. 서울: 다산글방.
- Yoon, S. R. (2022). Is the view of God in Korean national religion really panentheism? [http://www.kirc.or.kr/hermeneut/hermeneut_03.php?mode=view&tblname=BBS_21&page=4&seqid=1047news letter 716](http://www.kirc.or.kr/hermeneut/hermeneut_03.php?mode=view&tblname=BBS_21&page=4&seqid=1047news%20letter%20716)./.